해설프로그램 진행 개요서

(소속 및 성명: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박민구)

□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나무야 놀자! 탄소야 놀자!
운영목표	봄꽃의 이른 개화시기와 기후변화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여 우리의 실천방안을 생각해본다.
해설주제	봄꽃의 동시상영관, 도봉산 극장
해설소재	개나리, 진달래, 벚나무 등
운영장소	원도봉자연관찰로
운영시기	3~4월
모니터링 주기	월 2회
소요시간	10분
주요대상	초등학생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시간(분)
동기유발	만남	인사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봄꽃 알아보기	-	자 연 관 찰 로	2
주제별 해설	봄꽃 기후변화	-개나리, 진달래, 벚나무 봄꽃 알아보기 -점점 일찍 피는 봄꽃들 -기후변화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봄꽃	자 연 관 찰 로	6
마무리	마무리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실천방안 생각해보기	-	자 연 관 찰 로	2

해설프로그램 시나리오

안녕하세요,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박민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봄을 맞이한 숲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산책하며 숲 속의 봄기운도 만끽해보고 봄을 알려주는 꽃과 나무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더불어 자연 속에서의 우리 사람들 건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은 봄에 피는 꽃 하면 어떤 꽃이 떠오르나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이 생각납니다. 그럼 이 봄꽃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요?

개나리
나무 잔가지에 황금색의 종들이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나리꽃입니다. 숲에서 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한 꽃이죠. 개나리는 진달래와 더불어 봄에 피는 짝궁 같은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막 결혼한 새색시에게 치마는 진달래 색으로, 저고리는 개나리 색으로 만들어 주면서 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꽃모양이 튀밥 같다고 해서 튀밥 꽃이라 부르기도 하고 황금 종 모양 같다고 해서 서양에서는 골든 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달래
주변을 둘러보면 앙상한 잔가지들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연분홍색 꽃을 피운 진달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시절에는 진달래 꽃잎을 따먹기도 하고 그것으로 화전을 부쳐 먹기도 하였습니다. 3~4월경에 진달래가 꽃을 피우면 철쭉꽃은 5월경에 꽃을 피웁니다. 진달래와 철쭉은 모습이 매우 닮아서 많이들 혼동하시는 데, 진달래와 철쭉을 구별하는 것은 먹는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진달래는 먹을 수 있는 꽃이라 해서 참꽃이라 부르고 철쭉은 독이 있기에 먹을 수 없는 꽃이라 해서 개 꽃이라 불렀습니다.

산벚나무
봄에는 여의도에서 무슨 꽃 축제를 하죠? 바로 벚꽃 축제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연분홍색의 벚꽃들이 나무 위를 장식함으로써 봄의 분위기가 한층 더 화사하게 다가옵니다. 이 벚꽃을 피워내는 나무는 바로 벚나무입니다. 꽃보다 잎이 먼저 피는데, 엷은 분홍색의 벚꽃이 앞 다투어 피기시작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꽃이 질 때면 눈꽃 같기도 하고 꽃비 같기도 한 꽃잎들이 한 없이 흩날리는 데 그 모습이 하늘의 선녀가 날개옷을 벗는 모습과 같다 해서 사람들은 벚나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벚꽃이 관측 이후 99년 만에, 거의 100년 만에 가장 일찍 개화했다는 뉴스를 보셨죠? 낮기온이 20도까지 오를 정도로 따뜻한 날씨가 그 원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봄꽃의 개화도 점점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봄꽃이라고 하면 개나리랑 진달래가 먼저 피고 그다음에 벚꽃을 볼 수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동시에 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봄꽃 개화가 뒤죽박죽이거나 혹은 동시 개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개나리가 핀 뒤에 30일가량 지나서야 벚꽃이 개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서 2010년 사이에는 그 기간이 약 21일 정도 짧아졌고요.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는 그 간격이 일주일 간격으로 더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온난화 경향이 더 심해지면서 동시에 봄꽃이 개화를 하거나 오히려 개나리보다 벚꽃이 더 먼저 피고 지는 그런 봄꽃 개화 순서가 혼동을 빚는 그런 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혼돈의 봄꽃은 단지 봄꽃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태계에 교란을 가져올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칩은 3월 초지만 겨울잠에서 일찍 깬 개구리의 알이 2월 초반에 발견이 된다든지 그리고 봄꽃이 너무 빨리 피고 짐에 따라서 벌이 꽃가루를 제때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봄꽃 개화 시기의 변동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들이 멸종이 된다거나 혹은 생물의 다양성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봄꽃 개화시기의 변화에 왜 주목해야 할까요?
봄꽃의 개화시기에 변화가 생기고 변화의 폭이 커진다면 이는 꽃을 매개로 하는 곤충, 곤충을 먹이로 하는 새 등등 여러 생물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 생물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에 피어 있는 봄꽃을 보며 한번씩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봄꽃이 계속 '봄' 꽃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요즘에 산행하면서 쓰레기 줍는 게 유행이라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쓰레기를 줍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급식을 남김없이 다 먹는 것,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쓰는 것,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것과 나무를 심어 자연의 탄소 흡수 기능을 키우는 것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많은 시간 가까이하는 전자기기들.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전기를 소비하게 되고, 이 전력은 발전소에서 화석 연료를 태운 에너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메일함을 자주 비우는 것, 컴퓨터는 절전모드, 스마트폰 사용은 조금 줄여 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영상 시청 10분에 온실가스 1g, 메일 한통에 4g, 데이터 1MB에 11g이 생긴답니다. 데이터를 9MB만 사용해도 자동차 1km를 탄 것만큼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오늘 봄에 볼 수 있는 꽃과 더불어 숲이란 공간을 통해서 자연의 생명력을 느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간 문명의 이기심으로 인해 숲의 고유한 색깔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봄과 가을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전 지구적인 환경 폐해는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과 환경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지켜나가야지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자연의 신비로움과 위대함을 잃지 않는 길임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